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창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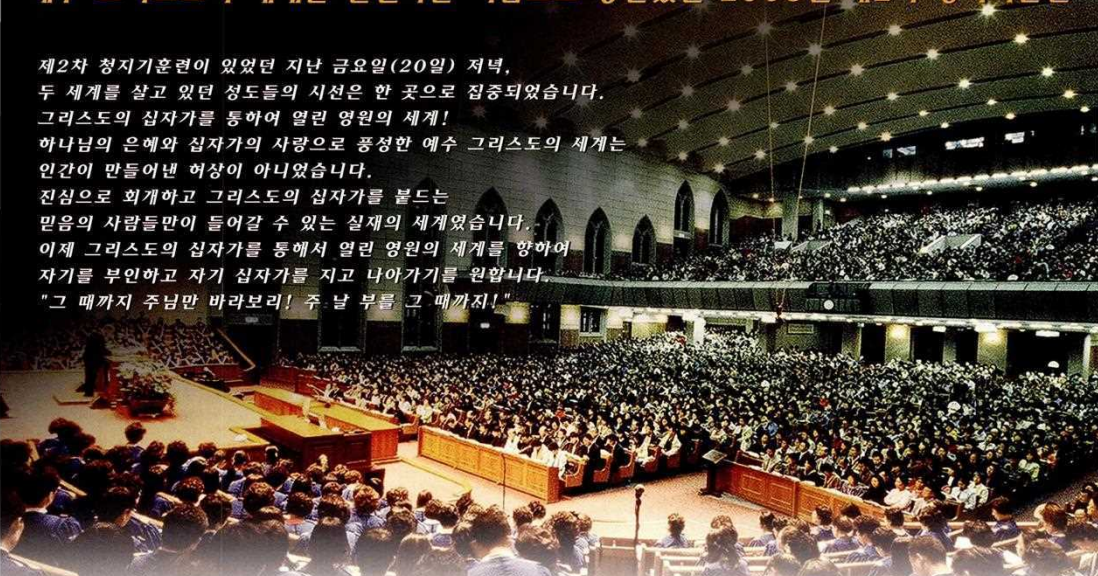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

제2차 청지기훈련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20일) 저녁,
두 세계를 살고 있던 성도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린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실제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 때까지!"



제2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두 세계 (요한복음 18:36)

인간의 마음은 기쁨이건 슬픔이건 자신의 가슴 속에만 담아 둘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창 4:3~4)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전달될까 의심한다. 또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제를 말씀하여 주신다. (눅 15:10)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주시는 말씀이다.

두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성도는 결코 천국과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고전 15:40, 49; 창 28:12~1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 (히 1:1~3)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다. (엡 2:16~17, 19; 시 139:1~4) 진정한 탄식 소리, 조용한 기도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왕상 8:34, 36)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신다. (왕상 9:3)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으신 분이요,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천국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다. (빌 3:20~21)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지체라고 친히 선포하여 주셨다. (엡 2:20~22; 엡 4:15~16)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그날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진다. (눅 2:13~14, 15:6, 9~10) 이 말씀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노래한다

천사들은 회개하는 영혼이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알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창 1:3~4) 해와 달이 만들어질 때에 그 경이로움을 천사들은 손을 들어 찬양했을 것이다. (시 136:5~9)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천사들이 보는 새 창조는 죄에 빠진 인간의 심령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며 회개하는 심령 속에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다. (창 1:25)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천사들은 죄인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피함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다. (유 1:6; 계 20:10, 15) 사탄이 사슬에 묶여 있을 그곳을 천사들은 가까이서 보았다. (벧후 2:4) 한때는 자기들과 함께 천성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던 그들이 이제 참혹한 곳에 거하는 것을 천사들은 눈으로 보았다. (눅 16:23~24) 천사들은 하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계 21:11~12, 21)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게로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이다. (눅 16:22) 이곳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고전 15:57~58)

오늘 찬양예배 시,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갑렬리울)

WHO IS THIS MAN?

⁽³⁵⁾On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them,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³⁶⁾Leaving the crowd, they took Him along with them in the boat, just as He was; and other boats were with Him.⁽⁴⁰⁾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⁴¹⁾They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ark 4:35~41)

After a long and hard day of work, Jesus invited His disciples to travel with Him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He had spent the day sitting in a boat preaching to a very, very large group that had gathered to hear Him. There were so many people crowding around Him that He was forced to sit in a boat along the seashore in order to preach. That day He revealed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arables of the sower, the lamp, the seed growing gradually, and the mustard seed. When He had finally finished preaching, He was tired. As He and His disciples traveled across the Sea of Galilee, He slept on the boat, and then a miracle took place, which caused His disciples to seriously wonder what kind of man they were with.

The disciples were with a man who invited them to travel along with Him. Jesus said to them,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v. 35) and leaving the crowd, the disciples "took Him along with them in the boat, just as He was; and other boats were with Him." (v. 36) He promised His fellowship on this journey to the other side, which meant they would arrive safely. How like the Christian life this is! Jesus invites us to travel with Him to heaven. We are often weary, but can rest assured in His Word that we will arrive safely. As we travel with Him toward heaven, many people think that the way will be smooth, happy, and full of glory. This is simply not true! Indeed, Jesus is the Master, but life's journey is just like this boat ride the disciples took with Jesus.

The disciples were with a man who would be with them through the storm. As they sailed across the waters, "..... there arose a fierce gale of wind,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 (v. 37) What a great storm it must have been! The high winds, heavy waves, tumultuous rocking, and powerful lightening demonstrated the devastating upheaval of nature. It was not always like this. Before the fall of man, the earth was at peace, but after the fall of man, the earth groans and suffers. (Rom. 8:22) Thankfully, Jesus is the man who is with us through all the storms of life. Even though we obey His commands, we will face persecution. Sometimes God reveals the reason for the storm. Jonah's storm was to bring him

back from backsliding. Paul's storm was to open new doors of witness. The disciple's storm was to test their faith. No matter what the reason for a storm, Jesus will be with us no matter what.

The disciples were with a man who was up for the occasion, "Jesus Himself was in the stern, asleep on the cushion; and they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And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Hush, be still.' And the wind died down and it became perfectly calm.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vv. 38~40) Jesus cares.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looks like, Jesus knows what is going on. Isaiah 40:28 reminds us,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does not become weary or tired. His understanding is inscrutable." Jesus knows our need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 4:15) Although He is God, His body was human,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6~7) This wonderful Jesus loves you. He died for you and conquered death, so that you could live eternally. When troubles come you can trust Him completely. He will always take care of you.

Upon Jesus' words, the waves ceased, the sea flattened, the moon broke through the clouds, and the only sounds were the slight movements of the boat and the swift beating of the disciples' hearts. In the calm of this night, the disciples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v. 41) This is Jesus, the Son of God, our Savior, Master, and Redeemer! He feeds us eternal food. He calms our storms and gives us His peace, the kind of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When the storms of life hit, please do not worry or be afraid. Practice your faith and all will be well. Amen. 

그가 누구이기에?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35~41)



김성완 목사

길고도 고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라 배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해변 근처에 있는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등불, 자라나는 씨,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자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함께 길을 떠나자고 제안한 분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 예수님은 바다 저편까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자주 지치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여행은 순탄하고 즐겁고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항해와 똑같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어 줄 분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7절) 틀림없이 엄청난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세찬 바람, 높은 파도, 격한 흔들림, 번쩍거리는 번개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 같은 자연의 위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항상 자연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롬 8:22)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광풍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십니

다. 요나가 만난 광풍은 그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고, 바울이 만난 폭풍은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폭풍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의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38~4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이사가 40:28은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6~7)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파도가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고 들러오는 것은 가벼운 배의 움직임과 빠르게 뛰는 제자들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제자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1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 곧 모든 것을 초월한 평화를 주십니다.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6. 18.)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에베소서 2:1~10)



거하게 될 것이다.(살전 4:16~17)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은총을 받은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은총보다 자신의 능력, 자존심으로 가득하다. 물론 겉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교회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옛 모습으로 돌변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본문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충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한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엡 2:1~3)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교만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다. 오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뿐이다.(요일 2:15~17) 이처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과거를 잊을 때 우

린간은 항상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찾는다. 이것이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내면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비 그리스도인과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마 26:27~28)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고 권면하였다. 무엇 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요 3:36)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소망은 전혀 없다. “나는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의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다. 오직 죄뿐이었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무 소망이 없던 과거 우리의 삶에 놀랄만한 은총이 내렸다. “궁홀이 통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라”(엡 2:4~6) 궁홀에 통성하신 하나님이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현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내려진 것이다. 이 은총은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현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다.(롬 5:10~11)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 최고의 복은 얻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려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따라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노력하지 말고 믿음을 갖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인적자가 되지 말자. 도를 닦지 말자. 외식자가 되지 말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사 19:25)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의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잊지 말자.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이때 현재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어두웠던 과거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제발의 때까지 그리스도인과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해라. 그러니 자신이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하라사 전하세!”(찬 508장) 아멘.

마가복을 강해

* 대주 철오새벽기도전(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다
(5:1~20)

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던 권이이 복음전도자가 되었다.(마 5:20) 이처럼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은 확연히 드러났다.(마 5:39~41)

예수님을 만난 거사사 관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없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에 대해 맹세하고 나와 고품직지 마옵소서”(마 5:7) 거사사 관인을 지배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있는 것’이 곧바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 이것은 오랜 연륜을 가진 신자들이야 마면 귀는 신앙문제의 원인이자. 예수님을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을 뿐, 믿음의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거사사인을 미치게 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다.(마 5:9) 여기서 ‘군대’는 당시 5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거사사인 안에는 오천이나 되는 악한 영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꺾이지 못 하였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은 2천 마리의 돼지들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에 빠져 물사하였다.(마 5:12~13) 이윽고 조그 만경까지 자신의 몸을 지체했다. 그 어떤 뼈대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날뛰던 거사사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거사사 지방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급이이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마 5:15~17) 왜 그들은 이렇게 하였는가?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유용한 가축이었다.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유용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돼지들이 죽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거사사 지방 사람들은 또 다시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다. 그들의 초점은 구주 예수님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 여부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소중히 여기던 돼지들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진리의 증언이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요 2:24)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내려놓자. “이제 열물을 새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마 3:14~15)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뜻(요 6:29,40)에만 순종하자.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들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만류관 확실히 받겠네.”(찬 287장) 아멘.



거룩한 꽃이 활짝 피어나길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나요?”라고 나는 아무나 자매에게 물어보았다. “두 번이에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몇 번에 받으셨어요?” “집에 걸렸어요.” 한국어가 서툰 아무나 자매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한다. 알고 보니 아무나 자매는 지난 2월에 세례를 받으셨며, 그때 받은 세례증서를 책자에 넣어 방에 걸어 두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잘 아는 배갈마 자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설명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물골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루함’이라고 번역하는데 리마블교의 ‘리마’나 이슬람교의 ‘알라’도 ‘보루함’이라 한다고 했다. 아무나 자매도 물골에 살고 있을 때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리마 사원에 가서 ‘보루함’에 빌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례받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고 확실히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나 자매는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때 자매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 그녀에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금요찬양집회가 어렵지 않아요?”라고 물어보았다. “한국말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금요찬양집회가 제일 좋아요.”라고 한다.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한다. 단기선교사를 위하여 모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위임목사님 말씀도 물골 성경을 찾아보면서 들으면 이해된다고 한다. 아무나 자매의 진지함 때문이다.

“물골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서슴없이 말한다.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다. 물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물골 형제 다섯 명이 세례를 받아 아무나 자매는 자기 일처럼 좋아했다. 꽃집에서 일하는 그녀가 다섯 가지 꽃을 가지고 와서 세례받은 형제들에게 한 송이씩 주면서 축하해 주었다. 그녀의 물골 본명인 ‘아리온 제치게’ (거룩한 꽃)이 어쩌면 그렇게 어울리는지……. 자매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최규환(교사, 외선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 고통이 찾아올 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아픈 경험은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임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선교가 그랬습니다.

선교지는 10년 만에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쳐서 폐허와 같았습니다. 1천 마리의 양 가운데 3마리만 살아남은 농장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휩쓸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연자살 주저앉아 있었고, 벌판에는 바람 때문에 죽은 소와 양, 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집안에 들여놓을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의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순간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서툰 메시지로 위로받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눈물을 똑똑 흘리던 한 소년과 복음을 들으며 환희에 찬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를 보며 회오리바람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어준 마음으로 물골의 영혼에게 다가가기 원했던 제게 주님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제가 아니라 주님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그 위로와 복음이 제 입술을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감동을 주는지 이제껏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금 고통과 주님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고통까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고, 자녀인 저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진순(권사, 18교구 1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3일(월)~7월 1일(화)	9교구 1지역	박춘근
6월 24일(화)~7월 2일(수)	14교구 6지역	류기명
6월 26일(월)~7월 4일(금)	6교구 2지역	장정욱
6월 26일(목)~7월 4일(금)	24교구 7지역	박민호
6월 27일(금)~7월 4일(금)	17교구 6지역	이정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중등2부



김연태(장로, 중등2부장)

하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심방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등2부의 교육목표는 첫째,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말씀, 성경암기 생활화) 둘째,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신령한 예배, 기도) 셋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빌 2:5)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고,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은 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배를 진실로 드리며, 말씀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등2부 학부모임들에서는 학생들이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모든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중등2부에서는 중등의 자녀들로 보혈로 값 주고 사신 자녀들을 불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시험기간에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중등2부에서는 격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학교 앞 전도에 임하고 있으며, 여름수련회(7월 28일~29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방학에는 3개 팀이 단기선교(8월 4일~16일)를 계획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세밀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중등2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등2부의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며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부인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등의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가족, 구역

믿음이 뜨거운 구역식구들을 만나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며 생활의 전부 가 예수님이신 부지역장님과 구역장님, 믿음의 뿌리가 깊고 늘 불편하신 몸으로도 꼭 구역예배에 참석하시는 은혜바님,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오 는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집 사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역식구들의 발이 되어 주시는 안수집사님, 이 모 든 분들이 내게는 소중한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잦은 해외출장 중에도 복음 전하 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행하며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들려주셔서 은혜받게 하시 는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구역장님을 부러워하며 나 도 덩달아 은혜를 받는다. 나는 언제나 저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구역예배 내내 구역장님의 입을 통해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다. '어디서 그런 열정과 능력과 믿음이 나오 는 건지?'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확고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를 감동케 하고 빨려 들어가게 한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구역장님은 "아멘"으로 받들어주시며 고난의 시 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안에 들어있는 축복임을 깨우쳐 주신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 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강조하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고! 구역예배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꼭 참석하려고 한다. 구역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 록 시간과 요일을 융통성 있게 정하여 모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배시간 이면 짧지만 하던 내 구역예배 때 **주(중헌원)**을 들어도 다음 주일 설교말씀을 공 부하게 된 후 예배시간에 출석 않고 말씀이 깨어 들리오기 시작함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나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 나의 일 같이 간절 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아껴 주는 아름다운 가족, 그것이 우리 구역이다. 감사한 일이 수없이 많지만 감사가 감사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 부지역장님께서 감사의 내용을 적으라고 구역원들에게 노트를 준비해 주셨다. 감사 하 내용들을 적다 보면 나는 그래도 축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게 감사하 며 마음이 편안해져 감사를 찾는 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구역예배 시간만큼은 세상 이야기에서 벗어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어서 좋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다짐하게 되는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를 볼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늘 사명으 로 구역식구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돌보시며 끊임없이 기도로 지켜주시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구역장님과 부지역장님, 권사님, 권 참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난로 곁에 있는 내 영혼의 물주전자라 서서히 뜨거 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미지(집사, 4교구)

네,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 되면 나의 가슴은 설렌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나며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수요일 2부 예배와 수요일성경공부가 정말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과 존귀가 온 성령을 가득 메움은 온 몸으로 경험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한 앎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힘 있음을 나 영원 토록 찬송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총에 눈물이 난다. 주님이 내려 주시는 말씀이 너무 나 달고 맛있다.

주님의 큰 은혜를 혼자 누리기가 아까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집사님, 권사님 모두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 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을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된다. 성령님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 로 드러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 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권능 있는 삶을 소원한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여 간구한다. 또한 수요일성경공부 이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 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써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게 되었다.(요 8:32:36) 하나님은 정점 더 나의 삶이 순종하는 모습이 되도록 강도 있게 훈련시키심을 품으로 느낀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과 시간에서 마음에서는 "못해요."인데 나의 입술은 "네,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겁게만 보인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내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섭섭한 소리나 성령을 근심 게 하는 망령된 소리도 기쁨이 되며 주야간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확증된 사 람을 깨닫게 되었고, 섭섭하게 했던 그들을 위해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 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우리의 사건이고 영생을 약속받는 사 건이며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나로 입는 실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생의 사건임을 생각할 때 내가 잠시 받는 고난은 예 수님이 받은 고난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주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를 체험한 자들이 해야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감사함으로 자신의 지체들을 섬기며 제 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참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운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역 을 감당하기를 소망도 간절히 소원한다.(고전 15:58)

고금진(집사, 13교구)

너 하나님께 이글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암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의사 전선님의 이 한마디에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개월 전부터 가슴에 작은 멍을 하나가 만져졌지만 단기간검사를 준비하 나데 마음이 바빠서 신경을 건지거나 아무 일도 아닐지 바라며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었 다. 그런데 만저지는 그게 웬지 다른 것 같았다. 8월에 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단기간검사를 다녀온 뒤 10월에 X-ray와 초음파를 거쳐 조직검사까지 받고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암'이었다. 남편은 안타깝게 얼굴로 뭐라 말도 못하고 내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상하지 만큼 나의 마음은 담담하고 평안하였다. 그리고 감사했다. 만약에 선교 가기 전에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되 었을까? 아마도 선교를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주님께서 단기간검사를 다녀온 후 결과를 듣게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쳐 주실 거야." 나는 오히려 얼굴이 굳어져 버린 남편의 손 을 잡아주며 위로해 준다. 수술날짜를 잡기까지 여러 가지 여러군데 일일이 많았지 만 모든 것을 주님이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하니 감사하 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술실로 들어가며 기도했다.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수술은 시작되었고 종양은 컸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도 예 상과는 달리 바로 절개로 빨리 끝났으며 가슴은 전혀 피와 같은 상태로 남을 수 있었 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함양치료를 받느라 너무 힘들던 어느 날, 고통을 잊기 위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나가 천천히 기도하며 걸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찬송가 312장을 부르 게 하셨다. "너 하나님께 이글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돕주시고 언 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음은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주님은 잠깐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그 사랑이 한때를 옮겨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을 때 주님은 옆 침대의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 다. 그녀는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온 가족의 권유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재능들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많은 사람들 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그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잠시 고통을 주시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세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재능은 입을 열었다. "회개하면 바로 교회에 나갈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재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궁금해지고 잠깐 틈을 타 옆자리에 앉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불 은 뒤 복음을 전하곤 한다. 예전의 내 모습과 참 많이 달라져 있다. 지금은 모든 치 료를 끝내고 회복 중에 있다. 오늘날 주님은 새벽마다 나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 신다. 빨리 회복되어 구역집일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일에 봉사도 다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김성자(집사, 22교구)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

너무도 부족한 저를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양쪽 집안 모두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기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은 평탄했고 부족함이 없었기에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러던 저에게 2년 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기가 막혀서인지 원망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먼저 죽을지 모르는다는 생각만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저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최고인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온 저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위기와 고난은 저를 겸손하게 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도 길고 지루했던 순간에 늘 저와 함께 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신성회(성도, 새가족양육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몇 년 전, 저녁에 시간에 작고 귀여운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 드리는 만도린 연주대를 보았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악기로 찬양 드리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다. 전 공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환영한다는 광고에 용기를 얻어 기초부터 배웠다. 만도린은 무와와 열매를 반으로 쪼개어 놓은 모양의 악기로 모양이 예뻐고, 한 음 한 음 소리를 낼 때마다 찬송이 되어서 나오는 소리는 나의 신앙고백이 되었다. 악기는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것과는 달라서 우리는 연습할 때에 꼭 찬송가 가사를 적어 놓고 가사에 중점을 두고 연습한다. 또 악보를 외워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단순히 기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내용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사를 악기로 찬송 드린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위기 한때.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그들이 무거워 이 땅아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걸 곳 찾았네." 때로는 완벽한 하모니 아니더라도,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금 서툴러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대원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다 칭찬 받는 모습이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때로는 낙심되어 넘어질까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으리라."고 고백하는 만도린 연주대원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박귀숙(집사, 만도린 연주대)

십자가의 길

두 세계를 사는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은총의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마치 장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샘물 등 거의 매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듯이 말이다. 이 모습이 죄로 이미 죽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다. 말씀을 잊은 채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언급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거쳐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일뿐이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잊게 한다. 하나님인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였듯이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약속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들을 속삭인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벧전 1:17)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영혼에 상처를 주는 육체의 정욕도 자신의 경험과 힘이 아닌 말씀으로 제어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다.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한다.(벧전 1:23) 그렇다만 두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지금 곧 책꽂이 한 면에, 신발장 위에, 차 트렁크 속에 넣어 둔 성경을 꺼내 들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편집국)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44	부지	25 외선부	곽승환(15)	1368	최희진	17 장년3부	이현주(17)	1392	수설로프란	25 외선부	이향선(15)
1345	김정희	21 청년1부	김승희(1)	1369	홍준기	4 장년1부	김규범(24)	1393	아나	25 외선부	이향선(15)
1346	최홍희	4 중동2부	민준서(15)	1370	니할	25 외선부	이정연(6)	1394	수연기	25 외선부	사거려(25)
1347	윤소정	7 소년부	이정환(8)	1371	김종태	7 장년3부	백은설(22)	1395	담미개	25 외선부	사거려(25)
1348	신희정	6 장년1부	이재자(20)	1372	강은아	2 청년1부	이홍우(15)	1396	조영환	17 대학부	박정민(2)
1349	김영훈	13 장년4부	최미재(7)	1373	손정수	19 장년1부	김정래(2)	1397	경성현	3 장년2부	이승득(1)
1350	황두환	8 고동부	박연경(8)	1374	이성호	20 청년1부	김대욱(15)	1398	김보하	17 청년1부	박진수(16)
1351	김진현	8 고동부	박연경(8)	1375	김준수	10 대학부	김진욱(9)	1399	박상근	19 장년1부	장학경(14)
1352	차종근	17 청년2부	김영희(17)	1376	안지영	13 청년1부	최승희(15)	1400	김진호	12 청년1부	양영애(20)
1353	홍승기	2 장년2부	김은국(7)	1377	최홍진	3 대학부	최성훈(9)	1401	이형자	3 장년2부	이금수(14)
1354	김보영	11 대학부	권혜은(11)	1378	김진지	21 대학부	윤영경(21)	1402	김성수	20 대학부	김현경(11)
1355	임선민	11 중동3부	조준비(1)	1379	박정순	19 장년2부		1403	정현호	14 장년4부	정정숙(17)
1356	이미주	19 청년1부	이성원(24)	1380	박우희	10 대학부	김사라(10)	1404	조순호	12 장년2부	곽영자(6)
1357	소순규	19 청년1부	박건일(15)	1381	김민영	2 장년3부	문현숙(17)	1405	엄정아	3 청년1부	김 광(3)
1358	윤현주	17 장년2부	김성희(17)	1382	정요정	17 장년1부	정영준(23)	1406	임기태	2 대학부	윤호준(2)
1359	윤종훈	8 장년1부	김영준(17)	1383	이성철	14 장년1부	박봉연(2)	1407	조귀영	24 장년3부	유기준(6)
1360	신소연	6 대학부	박정원(4)	1384	아수인	23 장년2부	장보준(2)	1408	배대비	11 유년부	김수자(11)
1361	조지형	19 고동부	정영희(22)	1385	이금국	14 장년2부	박창욱(17)	1409	이해원	5 고동부	이도현(1)
1362	박재성	8 장년1부	김정애(11)	1386	김정호	5 장년2부	이영선(14)	1410	이승조	25 예배다부	전혜영(25)
1363	조씨애	25 외선부	정현희(8)	1387	최성갑	14 장년2부	안영숙(14)	1411	심상문	15 청년1부	김희정(25)
1364	조연경	23 청년1부	김영민(23)	1388	유지민	11 청년1부	김정숙(12)	1412	연반란	9 장년3부	정영숙(17)
1365	박정호	23 청년2부	김대영(24)	1389	혜미	25 외선부	이향선(15)	1413	김지훈	2 청년2부	윤호준(2)
1366	신상숙	20 청년2부	김경미(9)	1390	신정호	25 외선부	김정숙(15)				
1367	남기민	21 청년2부	이승아(22)	1391	지아소	25 외선부	이향선(15)				

* 홍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연사 연설 릴레이 (1·2·3·4회)

일시 : 25일 (수) 12:40 장소 : 갈릴리움

2. 남녀 전도회 전체 릴레이

일시 : 29일 (다을 주일) 15:10

장소 : 제1교구관 407호

결론

1. 갈릴리움 (군)순회 발표지도·이전해 발표원서

아름, 19교구와 정승원 열(가인)장, 이희복

의사, 박, 24교구 / 27일(수) 13:30, 갈릴리움

2. 남부주 권이현성 성도의 아들, 3교구와 갈릴리움

사망, 김명익 목사·박민이 권사(의, 박) / 28일

(토) 15:00, 해동호텔 본관2층 백합홀

발세

1. 갈릴리움 타코넬(관)순회(종교)장사 모인, 남부주

의사, 박, 24교구 / 27일(수) 13:30, 갈릴리움

2. 남부주 성도(전도)성도의 아들, 3교구와 갈릴리움

사망, 김명익 목사·박민이 권사(의, 박) / 28일

(토) 15:00, 해동호텔 본관2층 백합홀

주요변경

1. 함양남 권사(인)관영사 부부구 산복후 124-21

회(파)트 217동 703호. 032-265-8480)

충현기도원 축막직업 모집

1.모집부서 4명(주)에서 일할 신(신)교(교)로(로) 영(영)인

2.모집부서 4명(주)에서 일할 신(신)교(교)로(로) 영(영)인

3.모집부서 4명(주)에서 일할 신(신)교(교)로(로) 영(영)인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유상재	정승선/이병권	양창호/노은영	이정진/전상진	이재영/조호원	김준희/이혜숙	정승선/장승만
설교 본문	막 6:1-6	렘 38:11-19	렘 36:20-28	렘 36:27-32	렘 37:1-10	렘 37:11-21	렘 38:1-13

날짜	예배	설교	사회	찬양
6/25	수요 I	다른 복음은 없나(갈 1:1-10) 최강진 목사	유재진	장정희
6/25	수요 II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요 13:36-38) 박용현 목사	유은하	장순옥
6/27	금요일	김성관 목사	유원철	최유진
6/29	주일 I	그가 누구이기에(막 4:35-41) 강명구 목사	강호성	정선현
6/29	주일 II	그가 누구이기에(막 4:35-41) 이희석 목사	김준희	김규식
6/29	주일 III	그가 누구이기에(막 4:35-41) 김성관 목사	장 훈	정현환
6/29	주일 IV	그가 누구이기에(막 4:35-41) 정승선 목사	유진원	김택지
6/29	주일 V	그가 누구이기에(막 4:35-41) 김명구 목사	최강진	정용호
6/29	주일특별	사랑의 나의 아기는 어찌되었나(고전 15:50-58) 정승선 목사	박정진	김종훈

구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
중등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801
중등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801
중등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

12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시 : 6월 22일(수) 14:00

장소 : 제1교구관 307호

장년3부 여름수련회

일시 : 6월 29일(목) 10:00

장소 : 제1교구관 307호

소방부 여름수련회

일시 : 6월 24일(목) 10:00

장소 : 갈릴리움

장년4부 여름수련회

일시 : 6월 28일(목) 10:00

장소 : 예비다부설(제2교구관 1층)

2008년도 우반기 장학신청

1. 선별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8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매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6월 22일(수)~7월 6일(수) 16:30까지(3주전)

3. 선별일시

7월 18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처

교육국 ☎ 02-552-8200(472, 473)

어린이 성경 그림책 및 동화책 수집

1. 기증일자 : 6월 8일(주일)~29일(주일) 매주일

2. 기증장소 : 탁아부 교사실(선교관 1층)

3. 기증물품 : 가문 내 모든 어린이용 성경그림책 및 동화책

소요부예 배제 지역 봉사자 모집

1. 봉사시간 : 매주 수요일 09:30~20:30

2. 문의 및 신청 : 예비다부설(제2교구관 1층, # 416)

충현복지단 직원 모집

1.모집부서 ① 사무국(1958년 이후 출생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제57호 제58호 제59호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제86호 제87호 제88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96호 제97호 제98호 제99호 제100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17호 제118호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 제123호 제124호 제125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 제135호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 제148호 제149호 제150호 제151호 제152호 제153호 제154호 제155호 제156호 제157호 제158호 제159호 제160호 제161호 제162호 제163호 제164호 제165호 제166호 제167호 제168호 제169호 제170호 제171호 제172호 제173호 제174호 제175호 제176호 제177호 제178호 제179호 제180호 제181호 제182호 제183호 제184호 제185호 제186호 제187호 제188호 제189호 제190호 제191호 제192호 제193호 제194호 제195호 제196호 제197호 제198호 제199호 제200호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 제205호 제206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 제210호 제211호 제212호 제213호 제214호 제215호 제216호 제217호 제218호 제219호 제220호 제221호 제222호 제223호 제224호 제225호 제226호 제227호 제228호 제229호 제230호 제231호 제232호 제233호 제234호 제235호 제236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 제242호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제250호 제251호 제252호 제253호 제254호 제255호 제256호 제257호 제258호 제259호 제260호 제261호 제262호 제263호 제264호 제265호 제266호 제267호 제268호 제269호 제270호 제271호 제272호 제273호 제274호 제275호 제276호 제277호 제278호 제279호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제283호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제291호 제292호 제293호 제294호 제295호 제296호 제297호 제298호 제299호 제300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제311호 제312호 제313호 제314호 제315호 제316호 제317호 제318호 제319호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 제323호 제324호 제325호 제326호 제327호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제334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제339호 제340호 제341호 제342호 제343호 제344호 제345호 제346호 제347호 제348호 제349호 제350호 제351호 제352호 제353호 제354호 제355호 제356호 제357호 제358호 제359호 제360호 제361호 제362호 제363호 제364호 제365호 제366호 제367호 제368호 제369호 제370호 제371호 제372호 제373호 제374호 제375호 제376호 제377호 제378호 제379호 제380호 제381호 제382호 제383호 제384호 제385호 제386호 제387호 제388호 제389호 제390호 제391호 제392호 제393호 제394호 제395호 제396호 제397호 제398호 제399호 제400호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 제404호 제405호 제406호 제407호 제408호 제409호 제410호 제411호 제412호 제413호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제417호 제418호 제419호 제420호 제421호 제422호 제423호 제424호 제425호 제426호 제427호 제428호 제429호 제430호 제431호 제432호 제433호 제434호 제435호 제436호 제437호 제438호 제439호 제440호 제441호 제442호 제443호 제444호 제445호 제446호 제447호 제448호 제449호 제450호 제451호 제452호 제453호 제454호 제455호 제456호 제457호 제458호 제459호 제460호 제461호 제462호 제463호 제464호 제465호 제466호 제467호 제468호 제469호 제470호 제471호 제472호 제473호 제474호 제475호 제476호 제477호 제478호 제479호 제480호 제481호 제482호 제483호 제484호 제485호 제486호 제487호 제488호 제489호 제490호 제491호 제492호 제493호 제494호 제495호 제496호 제497호 제498호 제499호 제500호 제501호 제502호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 제506호 제507호 제508호 제509호 제510호 제511호 제512호 제513호 제514호 제515호 제516호 제517호 제518호 제519호 제520호 제521호 제522호 제523호 제524호 제525호 제526호 제527호 제528호 제529호 제530호 제531호 제532호 제533호 제534호 제535호 제536호 제537호 제538호 제539호 제540호 제541호 제542호 제543호 제544호 제545호 제546호 제547호 제548호 제549호 제550호 제551호 제552호 제553호 제554호 제555호 제556호 제557호 제558호 제559호 제560호 제561호 제562호 제563호 제564호 제565호 제566호 제567호 제568호 제569호 제570호 제571호 제572호 제573호 제574호 제575호 제576호 제577호 제578호 제579호 제580호 제581호 제582호 제583호 제584호 제585호 제586호 제587호 제588호 제589호 제590호 제591호 제592호 제593호 제594호 제595호 제596호 제597호 제598호 제599호 제600호 제601호 제602호 제603호 제604호 제605호 제606호 제607호 제608호 제609호 제610호 제611호 제612호 제613호 제614호 제615호 제616호 제617호 제618호 제619호 제620호 제621호 제622호 제623호 제624호 제625호 제626호 제627호 제628호 제629호 제630호 제631호 제632호 제633호 제634호 제635호 제636호 제637호 제638호 제639호 제640호 제641호 제642호 제643호 제644호 제645호 제646호 제647호 제648호 제649호 제650호 제651호 제652호 제653호 제654호 제655호 제656호 제657호 제658호 제659호 제660호 제661호 제662호 제663호 제664호 제665호 제666호 제667호 제668호 제669호 제670호 제671호 제672호 제673호 제674호 제675호 제676호 제677호 제678호 제679호 제680호 제681호 제682호 제683호 제684호 제685호 제686호 제687호 제688호 제689호 제690호 제691호 제692호 제693호 제694호 제695호 제696호 제697호 제698호 제699호 제700호 제701호 제702호 제703호 제704호 제705호 제706호 제707호 제708호 제709호 제710호 제711호 제712호 제713호 제714호 제715호 제716호 제717호 제718호 제719호 제720호 제721호 제722호 제723호 제724호 제725호 제726호 제727호 제728호 제729호 제730호 제731호 제732호 제733호 제734호 제735호 제736호 제737호 제738호 제739호 제740호 제741호 제742호 제743호 제744호 제745호 제746호 제747호 제748호 제749호 제750호 제751호 제752호 제753호 제754호 제755호 제756호 제757호 제758호 제759호 제760호 제761호 제762호 제763호 제764호 제765호 제766호 제767호 제768호 제769호 제770호 제771호 제772호 제773호 제774호 제775호 제776호 제777호 제778호 제779호 제780호 제781호 제782호 제783호 제784호 제785호 제786호 제787호 제788호 제789호 제790호 제791호 제792호 제793호 제794호 제795호 제796호 제797호 제798호 제799호 제800호 제801호 제802호 제803호 제804호 제805호 제806호 제807호 제808호 제809호 제810호 제811호 제812호 제813호 제814호 제815호 제816호 제817호 제818호 제819호 제820호 제821호 제822호 제823호 제824호 제825호 제826호 제827호 제828호 제829호 제830호 제831호 제832호 제833호 제834호 제835호 제836호 제837호 제838호 제839호 제840호 제841호 제842호 제843호 제844호 제845호 제846호 제847호 제848호 제849호 제850호 제851호 제852호 제853호 제854호 제855호 제856호 제857호 제858호 제859호 제860호 제861호 제862호 제863호 제864호 제865호 제866호 제867호 제868호 제869호 제870호 제871호 제872호 제873호 제874호 제875호 제876호 제877호 제878호 제879호 제880호 제881호 제882호 제883호 제884호 제885호 제886호 제887호 제888호 제889호 제890호 제891호 제892호 제893호 제894호 제895호 제896호 제897호 제898호 제899호 제900호 제901호 제902호 제903호 제904호 제905호 제906호 제907호 제908호 제909호 제910호 제911호 제912호 제913호 제914호 제915호 제916호 제917호 제918호 제919호 제920호 제921호 제922호 제923호 제924호 제925호 제926호 제927호 제928호 제929호 제930호 제931호 제932호 제933호 제934호 제935호 제936호 제937호 제938호 제939호 제940호 제941호 제942호 제943호 제944호 제945호 제946호 제947호 제948호 제949호 제950호 제951호 제952호 제953호 제954호 제955호 제956호 제957호 제958호 제959호 제960호 제961호 제962호 제963호 제964호 제965호 제966호 제967호 제968호 제969호 제970호 제971호 제972호 제973호 제974호 제975호 제976호 제977호 제978호 제979호 제980호 제981호 제982호 제983호 제984호 제985호 제986호 제987호 제988호 제989호 제990호 제991호 제992호 제993호 제994호 제995호 제996호 제997호 제998호 제999호 제1000호 제1001호 제1002호 제1003호 제1004호 제1005호 제1006호 제1007호 제1008호 제1009호 제1010호 제1011호 제1012호 제1013호 제1014호 제1015호 제1016호 제1017호 제1018호 제1019호 제1020호 제1021호 제1022호 제1023호 제1024호 제1025호 제1026호 제1027호 제1028호 제1029호 제1030호 제1031호 제1032호 제1033호 제1034호 제1035호 제1036호 제1037호 제1038호 제1039호 제1040호 제1041호 제1042호 제1043호 제1044호 제1045호 제1046호 제1047호 제1048호 제1049호 제1050호 제1051호 제1052호 제1053호 제1054호 제1055호 제1056호 제1057호 제1058호 제1059호 제1060호 제1061호 제1062호 제1063호 제1064호 제1065호 제1066호 제1067호 제1068호 제1069호 제1070호 제1071호 제1072호 제1073호 제1074호 제1075호 제1076호 제1077호 제1078호 제1079호 제1080호 제1081호 제1082호 제1083호 제1084호 제1085호 제1086호 제1087호 제1088호 제1089호 제1090호 제1091호 제1092호 제1093호 제1094호 제1095호 제1096호 제1097호 제1098호 제1099호 제1100호 제1101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104호 제1105호 제1106호 제1107호 제1108호 제1109호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제1113호 제1114호 제1115호 제1116호 제1117호 제1118호 제1119호 제1120호 제1121호 제1122호 제1123호 제1124호 제1125호 제1126호 제1127호 제1128호 제1129호 제1130호 제1131호 제1132호 제1133호 제1134호 제1135호 제1136호 제1137호 제1138호 제1139호 제1140호 제1141호 제1142호 제1143호 제1144호 제1145호 제1146호 제1147호 제1148호 제1149호 제1150호 제1151호 제1152호 제1153호 제1154호 제1155호 제1156호 제1157호 제1158호 제1159호 제1160호 제1161호 제1162호 제1163호 제1164호 제1165호 제1166호 제1167호 제1168호 제1169호 제1170호 제1171호 제1172호 제1173호 제1174호 제1175호 제1176호 제1177호 제1178호 제1179호 제1180호 제1181호 제1182호 제1183호 제1184호 제1185호 제1186호 제1187호 제1188호 제1189호 제1190호 제1191호 제1192호 제1193호 제1194호 제1195호 제1196호 제1197호 제1198호 제1199호 제1200호 제1201호 제1202호 제1203호 제1204호 제1205호 제1206호 제1207호 제1208호 제1209호 제1210호 제1211호 제1212호 제1213호 제1214호 제1215호 제1216호 제1217호 제1218호 제1219호 제1220호 제1221호 제1222호 제1223호 제1224호 제1225호 제1226호 제1227호 제1228호 제1229호 제1230호 제1231호 제1232호 제1233호 제1234호 제1235호 제1236호 제1237호 제1238호 제1239호 제1240호 제1241호 제1242호 제1243호 제1244호 제1245호 제1246호 제1247호 제1248호 제1249호 제1250호 제1251호 제1252호 제1253호 제1254호 제1255호 제1256호 제1257호 제1258호 제1259호 제1260호 제1261호 제1262호 제1263호 제1264호 제1265호 제1266호 제1267호 제1268호 제1269호 제1270호 제1271호 제1272호 제1273호 제1274호 제1275호 제1276호 제1277호 제1278호 제1279호 제1280호 제1281호 제1282호 제1283호 제1284호 제1285호 제1286호 제1287호 제1288호 제1289호 제1290호 제1291호 제1292호 제1293호 제1294호 제1295호 제1296호 제1297호 제1298호 제1299호 제1300호 제1301호 제1302호 제1303호 제1304호 제1305호 제1306호 제1307호 제1308호 제1309호 제1310호 제1311호 제1312호 제1313호 제1314호 제1315호 제1316호 제1317호 제1318호 제1319호 제1320호 제1321호 제1322호 제1323호 제1324호 제1325호 제1326호 제1327호 제1328호 제1329호 제1330호 제1331호 제1332호 제1333호 제1334호 제1335호 제1336호 제1337호 제1338호 제1339호 제1340호 제1341호 제1342호 제1343호 제1344호 제1345호 제1346호 제1347호 제1348호 제1349호 제1350호 제1351호 제1352호 제1353호 제1354호 제1355호 제1356호 제1357호 제1358호 제1359호 제1360호 제1361호 제1362호 제1363호 제1364호 제1365호 제1366호 제1367호 제1368호 제1369호 제1370호 제1371호 제1372호 제1373호 제1374호 제1375호 제1376호 제1377호 제1378호 제1379호 제1380호 제1381호 제1382호 제1383호 제1384호 제1385호 제1386호 제1387호 제1388호 제1389호 제1390호 제1391호 제1392호 제1393호 제1394호 제1395호 제1396호 제1397호 제1398호 제1399호 제1400호 제1401호 제1402호 제1403호 제1404호 제1405호 제1406호 제1407호 제1408호 제1409호 제1410호 제1411호 제1412호 제1413호 제1414호 제1415호 제1416호 제1417호 제1418호 제1419호 제1420호 제1421호 제1422호 제1423호 제1424호 제1425호 제1426호 제1427호 제1428호 제1429호 제1430호 제1431호 제1432호 제1433호 제1434호 제1435호 제1436호 제1437호 제1438호 제1439호 제1440호 제1441호 제1442호 제1443호 제1444호 제1445호 제1446호 제1447호 제1448호 제1449호 제1450호 제1451호 제1452호 제1453호 제1454호 제1455호 제1456호 제1457호 제1458호 제1459호 제1460호 제1461호 제1462호 제1463호 제1464호 제1465호 제1466호 제1467호 제1468호 제1469호 제1470호 제1471호 제1472호 제1473호 제1474호 제1475호 제1476호 제1477호 제1478호 제1479호 제1480호 제1481호 제1482호 제1483호 제1484호 제1485호 제1486호 제1487호 제1488호 제1489호 제1490호 제1491호 제1492호 제1493호 제1494호 제1495호 제1496호 제1497호 제1498호 제1499호 제1500호 제1501호 제1502호 제1503호 제1504호 제1505호 제1506호 제1507호 제1508호 제1509호 제1510호 제1511호 제1512호 제1513호 제1514호 제1515호 제1516호 제1517호 제1518호 제1519호 제1520호 제1521호 제1522호 제1523호 제1524호 제1525호 제1526호 제1527호 제1528호 제1529호 제1530호 제1531호 제1532호 제1533호 제1534호 제1535호 제1536호 제1537호 제1538호 제1539호 제1540호 제1541호 제1542호 제1543호 제1544호 제1545호 제1546호 제1547호 제1548호 제1549호 제1550호 제1551호 제1552호 제1553호 제1554호 제1555호 제1556호 제1557호 제1558호 제1559호 제1560호 제1561호 제1562호 제1563호 제1564호 제1565호 제1566호 제1567호 제1568호 제1569호 제1570호 제1571호 제1572호 제1573호 제1574호 제1575호 제1576호 제1577호 제1578호 제1579호 제1580호 제1581호 제1582호 제1583호 제1584호 제1585호 제1586호 제1587호 제1588호 제1589호 제1590호 제1591호 제1592호 제1593호 제1594호 제1595호 제1596호 제1597호 제1598호 제1599호 제1600호 제1601호 제1602호 제1603호 제1604호 제1605호 제1606호 제1607호 제1608호 제1609호 제1610호 제1611호 제1612호 제1613호 제1614호 제1615호 제1616호 제1617호 제1618호 제1619호 제1620호 제1621호 제1622호 제1623호 제1624호 제1625호 제1626호 제1627호 제1628호 제1629호 제1630호 제1631호 제1632호 제1633호 제1634호 제1635호 제1636호 제1637호 제1638호 제1639호 제1640호 제1641호 제1642호 제1643호 제1644호 제1645호 제1646호 제1647호 제1648호 제1649호 제1650호 제1651호 제1652호 제1653호 제1654호 제1655호 제1656호 제1657호 제1658호 제1659호 제1660호 제1661호 제1662호 제1663호 제1664호 제1665호 제1666호 제1667호 제1668호 제1669호 제1670호 제1671호 제1672호 제1673호 제1674호 제1675호 제1676호 제1677호 제1678호 제1679호 제1680호 제1681호 제1682호 제1683호 제1684호 제1685호 제1686호 제1687호 제1688호 제1689호 제1690호 제1691호 제1692호 제1693호 제1694호 제1695호 제1696호 제1697호 제1698호 제1699호 제1700호 제1701호 제1702호 제1703호 제1704호 제1705호 제1706호 제1707호 제1708호 제1709호 제1710호 제1711호 제1712호 제1713호 제1714호 제1715호 제1716호 제1717호 제1718호 제1719호 제1720호 제1721호 제1722호 제1723호 제1724호 제1725호 제1726호 제1727호 제1728호 제1729호 제1730호 제1731호 제1732호 제1733호 제1734호 제1735호 제1736호 제1737호 제1738호 제1739호 제1740호 제1741호 제1742호 제1743호 제1744호 제1745호 제1746호 제1747호 제1748호 제1749호 제1750호 제1751호 제1752호 제1753호 제1754호 제1755호 제1756호 제1757호 제1758호 제1759호 제1760호 제1761호 제1762호 제1763호 제1764호 제1765호 제1766호 제1767호 제1768호 제1769호 제1770호 제1771호 제1772호 제1773호 제1774호 제1775호 제1776호 제1777호 제1778호 제1779호 제1780호 제1781호 제1782호 제1783호 제1